

두려워 말고 나아가라, 그리고 이룩기 위해 자신을 던져라

주장환 | 전 파이낸셜뉴스 논설위원

인간의 성공과 행복은 스스로 어떻게 하느냐에 달려있다. 끈기와 집념, 성실과 근면, 정직과 선의, 박애와 상조, 시간관리와 끊임없는 자기계발 등... 다시 말해 스스로 행복해지고 성공할 수 있다는 신념이 인간의 행복과 성공을 만든다.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사람들 중 일부는 국가나 제도의 힘을 빌려 행복과 성공을 보장 받으려 할 뿐 스스로 성취하려 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지난 4월호부터 이런 낡은 정신에서 벗어나 보다 고양된 자세를 통해 삶을 깊이 있게 다듬어 나간 사람들의 이야기를 심는다. (편집자주)

미국의 인권지도자 마틴 루터 킹은 이렇게 일갈했다.

“네 마음의 믿음 속에서 첫 번째 계단을 밟아라. 계단 전체를 보지 말고 그냥 계단을 밟아 나아가라.”

이 말의 전체적 의미는 서성대지 말라는 것이다. 어떤 일에 착수하고 나서부터는 그 일에만 빠져 들고 다른 걱정이나 불안감을 가지지 말라는 의미다. 의식을 한 곳에 모아 집중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반드시 길 전체를 보지 않고서도 기꺼이 시작 해야만 한다는 걸 의미하기도 한다.

우리가 무엇인가 이루고자 한다면 첫 걸음을 내디딜 때 거리낌 없는 마음으로 몰입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일이 진행 되어 나가는지 지켜보아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를 잘 알면서도 그것을 어떻게 성취해야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작하길 두려워하는데다 눈앞에 나타나는 길이 무엇인가 명확하

지 않고 안개가 낀 듯 흐릿하기 때문에, 그리고 나타날 결과에 대해 확신이 없기 때문에 뒷걸음질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장애들을 제거하고 반드시 ‘산이 저기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미지의 정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올라야 한다.

미국 메리 케이 화장품 회사 창립자인 메리 케이 애쉬는 이렇게 말한다.

“모든 실패에는 달리 선택할 수 있는 행동 코스가 있다.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된다. 장애물을 만나게 되면, 우회로를 택하라.”

많은 성공한 CEO들은 비록 곧바로 나아갈 수 없다 하더라도 돌아갈 길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중요한 것은 계속 움직여야만 한다. 구름도 비를 내리기 위해 계속 움직이는 것이다.

얼마 전 사망한 미국 부동산업계 여왕 리오나 험슬리는 특이한 유언을 남겼다.

우리도 역시 만일 자신이 그것에 몰두하여 길이 나타나리란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현재의 우리에서 소망하는 모습의 우리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우중충한 어둔 길을 걸어가는 것보다 같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한다면 길의 더 많은 부분이 드러나 보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운이 좋으면 가로등이 나타나는 행운도 맛볼 수 있다.

그녀가 쓴 유언장을 보면 재산 40억 달러(3조 7000억원) 가운데 1200만 달러(115억원)를 8년생 몰티즈종(種) 애완견 '트리블'에게 주라는 내용이 들어 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좋은 팔자를 타고난 이 개가 여생을 걱정 없이 살도록 돌보는 책임은 남동생이 졌다. 그는 그 대가로 1000만 달러(약 94억원)를 받았다. 험슬리의 손자 4명 가운데 2명은 1000만 달러의 유산을 상속받았다. 반은 현찰 일시금으로, 나머지 반은 재단에서 받는 연금형태다. 손자들이 연금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묘소를 1년에 한 번 이상 찾아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표시해야 한다. 험슬리가 첫 번째 결혼에서 낳았다가 사망한 아들이다. 험슬리는 가족묘에 방문객 명부를 비치토록 해 손자들이 직접 와서 사인하도록 했다.

그녀는 “손자들이 한 해라도 성묘 하지 않으면 그 해에 손자들이 죽은 것으로 간주해 연금지급을 중단하라”고 유언장에 명시했다.

얼핏 보면 아이들에게 너무 모질게 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우리는 ‘잘난 사람들’이 일을 할 때는 항상 무슨 의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험슬리는 유족들이 지속적으로 무엇인가 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유산을 그저 남겨주기만 한다면 그들의 인생은 황폐해지게 될 것이다. 평생 평평 써도 모자라지 않는 돈을 들고 있으면 무엇인가 하고 싶지도 않고 하려고 해도 귀찮아서 내팽개쳐 치는 경우가 많다. ‘돈을 받으려면 아버지의 묘소를 1년에 한 번 이상 찾아 존경과 추모의 마음을 표시해야 한다’

는 유언은 이른바 동기유발 방법이다.

성공하려면 계속 움직여야 한다는 말만큼 교훈적인 것도 드물다.

“우리는 이 길을 딱 한번 간다. 사는 동안 발끝으로 조심스럽게 걸으며 심하게 타박상 입지 않은 채로 죽음에 이를 수도 있고, 아니면 자신의 목표들을 성취하고 자신의 가장 멋진 꿈들을 실현시키면서 충만하고 모든 걸 다 갖춘 완전한 삶을 살 수도 있다.”

미국의 백만장자이자 방송인이며 성공 트레이너인 밥 프록터의 말이다.

내가 아는 어떤 사람은 그림에 대해서는 ‘절대화감’이었다. 무슨 그림이든 ‘척 보면 앵니다’ 였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한 번 쓱 보고는 그대로 그려내는데 친구들 모두가 그의 그런 재능을 부러워했다. 어린 시절 그가 그린 만화를 보며 재미있는 시간을 보낸 기억도 새롭다. 크면서 여러 차례 미술전에 입상하기도 하면서 여학생들에게 이름을 날렸다. 고교를 졸업하고 우리는 헤어졌으며 난 그의 소식을 잘 듣지 못하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날 난 그를 신문에서 봤다. 당연히 전시회라도 하는 줄 알았다. 그러나 그는 참으로 이상한 길로 돌아 서 있었다.

그가 저명화가의 그림을 위조해 판 사기혐의로 경찰에 구속됐다는 것이었다. 사연은 이랬다. 그는 유명화가가 아니었기에 작품 당 10만~20만원도 채 받지 못했고 어떤 때는 1년 동안 한 점의 그림도 팔지 못해 생계조차 유지하기 어려웠다. 생각다 못한 그는 국내 최고 작가의 그림의 위작을 만든 뒤 시중에 유포시켰다. 그는 사람들에게 “몇 억원 이상 값이 나

배우 케빈 소르보는 “나도 걱정거리들이 있다. 하지만 그 무엇에 대해 불안을 느끼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해부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정복하려 하며 ‘내가 뭘 두려워하지?’ 라고 말한다. 장담하건데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던 경우 보다는 실패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말할 것이다. 내가 광고 일감 하나를 얻어낼 때마다, 내가 얻어내지 못한 것이 2백 개는 됐다. 당신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정복해야만 한다.” 고 말했다.

가는 진품인데 싸게 팔겠다”고 속여 몇 천만원에 팔아넘기는 가하면 그림들을 대량 유통시켜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별하기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 그는 고교를 졸업하고 가난한 환경 탓에 대학을 가지 못했으나 여러 차례 미술전 등에 입상하기도 했다. 하지만 학력을 속이고 개인전을 열거나 위작을 진품이라고 속여 파는 등 사기로 점철된 인생을 살았다.

그는 한마디로 자신의 재능을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도 되면서 자신의 수입도 될 수 있도록 쓸 수 있을지 몰랐던 것이다.

사람들은 자신의 재능이 자신의 예술에 대한 열정과 사람들을 도우려는 욕망을 생계가 되는 것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발견해내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노래에 재능이 있는 어떤 여자는 그 방법을 이렇게 발견했다.

그녀의 일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다.

“나는 이 세상이 더 좋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내 재능들을 기꺼이 사용하고 싶다. 그렇게 하려면 정확히 어떻게 내 재능들을 사용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지만 누구에게든 내가 준비되어 있다는 사실은 알려야겠다.”

그녀는 움직였다. 그녀는 구청이나 백화점 문화센터에 전화를 걸어 이렇게 말했다.

“만일 저를 초빙해서 노래 몇 곡을 부르게 한다면 그것은 당신들이 저를 알게 되고 또한 제가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는지를 알게 될 기회를 안겨 드릴 겁

니다. 그리고 채 몇 달도 안돼서 다시 절 초대해서 노래를 듣고 싶게 될 겁니다.”

그게 전환점이 되었다. 처음엔 웃긴다며 무시하던 곳에서 전화가 오고 그녀는 그곳에 나가서 노래를 불렀다. 그러자 모두들 그녀에게 잘 부른다며 칭찬했다. 그리고 계모임, 동창회모임, 환갑잔치 등에 초대하는 사람들이 늘어났다. 그녀는 이른바 공중과 가수는 아니다. 그러나 잠시 쉴 틈도 없이 바쁘다. 그녀는 자신의 꿈을 모두 성취했다. 왜냐하면 그녀는 그것에 몰입했고 나타난 길을 믿고 따랐기 때문이다.

우리도 역시 만일 자신이 그것에 몰두하여 길이 나타나리란 사실을 믿기만 한다면, 현재의 우리에서 소망하는 모습의 우리가 될 수 있다. 때로는 우중충한 어둔 길을 걸어가는 것과도 같을 것이다. 하지만 계속 앞으로 전진 한다면 길의 더 많은 부분이 드러나 보이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린 목표에 도달하게 될 것이다. 운이 좋으면 가로등이 나타나는 행운도 맛볼 수 있다.

당신이 탐험하고 싶고, 그것에 몰입하고 싶은 자기 삶의 한 영역을 찾아라.

TV 시리즈 ‘헤라클레스: 그 전설적인 여정’에 출현하여 인기를 모았던 배우 케빈 소르보는 이렇게 말했다.

“나도 걱정거리들이 있다. 하지만 그 무엇에 대해 불안을 느끼든지 간에 나는 그것을 해부하지 않는다. 나는 그것을 정복하려 하며 ‘내가 뭘 두려워하

‘디워’로 지난 10여 년간의 꿈을 한 번에 성취시킨 심형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그는 언젠가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고, 영화계에서 무어라 하든 기꺼이 홀로 헤쳐 나갈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도 해낼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디워에 모든 것을 걸었다. ‘임전무퇴’,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몰두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리고 이루기 위해 자신을 던져라.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하듯이 그렇게 달려라.

지?’라고 말한다. 장담하건데 일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은 성공했던 경우 보다는 실패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고 말 할 것이다. 나도 성공 보다는 실패했던 경우가 훨씬 더 많았다. 내가 광고 일감 하나를 얻어낼 때마다, 내가 얻어내지 못한 것이 2백 개는 됐다. 당신은 자신이 두려워하고 있는 것을 정복해야만 한다.”

요즘 영화 ‘디워’로 지난 10여 년간의 꿈을 한 번에 성취시킨 심형래는 정말 놀라운 사람이다. 그가 고려대를 졸업했든 안했든 그건 문제가 아니다. 그는 10여년 전부터 이무기를 주제로 한 영화를 만든다고 떠돌고 다녔다.

그는 언젠가 나와의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나는 반드시 이 영화를 만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아주 명확한 꿈을 가지고 있고, 영화계에서 무어라 하든 기꺼이 홀로 헤쳐 나갈 의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의 이런 말에 정신이 나갔다고 말하는 사람과 “저 친구는 반드시 해낼 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두 부류로 나뉘었다. 해낼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심형래를 잘 아는 사람들이었다. 방송국에서 개그맨을 할 때부터 그를 지켜봐 온 나는 해낼 거라는 측에 속했다. 뛰어난 아이디어로 동료들을 리드하고 주위 개그맨까지 웃기는 천재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의 꿈을 믿어야 한다는 걸 알고 있었다. 그는 모든 사람이 “당신이 틀렸다”고 말해도 해낼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는 디워에 모든 것을 걸었다. ‘임전무퇴’, ‘배수의 진’을 치고 결사적으로 몰두한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나아가라. 그리고 이루기 위해 자신을 던져라. 사자가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전력을 다하듯이 그렇게 달려라. ◉

주장환

님은 서울신문사(스포츠서울), 세계일보를 거쳐 파이낸셜뉴스 문화부장, 국제부장, 유통부장 등을 역임한 후 현재 논설위원으로 재직 중입니다.

한국언론연구원, 캠브리지대학을 연수하였으며 충효예실천운동본부전문위원, 한국바디워크프로페셔널협회고문, 언론인민주언론실천위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성신여대대학원평생교육원, 삼성, GS문화원 등에서 「신문을 통한 우리 경제 엿보기」, 「문학의 이해-소설과 나」, 「레오나르도 다빈치와 함께 하는 NIE / 논술여행」 등

을 강의하고 있습니다.

저서로는 『논리강의』, 『논술이라고?, 너 딱걸렸어』, 『노벨문학상 스포츠 1,2』, 『과학퍼즐』 (문화체육부 선정 추천도서), 『레오나르도 다빈치식논술陣법 NIE』, 『로즈여사에게 배우는 특별한 자녀양육법 26』 등과 장편소설 『그 바닷가 헛간은 따스했다』, 『사바카』, 『겨울새 물살털기』, 시집 『내 마음 속에 사랑의 집 한 채』, 번역서 『독불장군처럼 살아라』, 『오사마빈라덴』, 『사랑을 주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등이 있습니다.